

第102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2000年6月20日(火) 午前 10時02分 開式

第102回 鐘路區議會(定例會)開會式順

- 1. 開 式
- 1. 國旗에 대한 敬禮
- 1. 愛國歌齊唱
-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 1. 開會辭
- 1. 閉 式

(司會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11時02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지금부터 제1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齊唱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들에 대한 默念이 있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개회사가 있습니다.

○議長 洪承台 존경하고 친애하는 우리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20만 종로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盧張鐸 副廳長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언론사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초여름의 무덥고 굵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3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제102회 정례회가 개최되는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분단 55년 만에 실현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대해 종로구의회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남북정상들의 첫 만남이 남북한간에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7,000만 겨레의 영원인 평화적인 통일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오늘부터 여러 가지 의약에 대한 모든 국민에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개최하는 제102회 정례회는 주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다음달 9일이면 벌써 2년이 되어 이번 정례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는 뜻깊은 회의로써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회고해 보고 남은 2년의 잔여 임기동안 모든 주민의 뜻에 진실로 부응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전반기 의장 임기도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생

각해보면 2년의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저의 직책을 대과없이 수행해 온 데 대하여 남다른 감회가 느껴집니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막중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년 전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주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풀뿌리민주주의 싹인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자주의식을 더 한층 높임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동안 우리 3대 의회에서는 총 20회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165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조례안, 예산안, 도시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 등 총 165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였고 253건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도모해 왔으며,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204건을 시정·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의원세미나 개최, 그리고 현장방문 및 확인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의회 소식지를 발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과 다양한 의회 소식을 널리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임시회 중에서도 구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대 의회가 한 일 중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며 그 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9년 동안 우리 종로구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9년 동

안의 조례 중 현실의 우리 종로구민의 삶에 맞지 않는 모든 조례(안)을 수정 또는 개정할 그런 조례(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기에 우리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최되는 102회 정례회에서는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종전에 매년 11월말 경 정기회 시 실시해오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과 일반안건을 심사·의결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을 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지난날에 수행한 구정업무에 대해 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을 실현하는 장치로써,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 또는 개선을 촉구하고 잘못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서 주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관계규정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서만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11~12월중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조만간 마련됨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법이 개정되면 시기적으로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현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指標)로 활용되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액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실있고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건전한 비판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활발한 토론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정확하고 신속한자료 제 시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상호 발전적 인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 을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3대의회 후반기를 이 끌어 나갈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에 있어서는 주 민의 대표기관답게 가장 민주적이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 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정례회 의사일정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 각됩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와 지루 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건강에 각별히 유 의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3대의회 전반기의 마지막 회의라는 것 을 감안하시어 소정의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이상으로 제102회 종료 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時18分 閉式)

○出席議員數 19人

○出席關係公務員

- 副 區 廳 長 盧張鐸
-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 財 務 局 長 童連浩
-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 保 健 所 長 李星世

